

# 한솥밥 동행 “친구 있어 든든해요”



김민식



최정민



임기영



김윤동

## ‘운명처럼’ 김민식-최정민

“신기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두 친구의 인연이다.

KIA 타이거즈의 포수 김민식과 내야수 최정민은 마산중-마산고에서 함께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키웠던 친구 사이다. 이후 각각 원광대와 동아대로 진학하면서 4년의 시간을 떨어져 지낸 두 사람은 SK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서 재회했다. 여기까지는 프로야구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인연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군대는 물론 트레이더라는 운명까지도 같았다. 김민식은 “프로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와 대박’이라고 했었는데, 원래 계획과 달리 어떻게 하다 보니 둘이 군대도(상무) 같이 갔다. 또 트레이더에서 나란히 오게 됐다. 참 신기하다”고 웃었다.

올 시즌 시작을 앞두고 트레이더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두 사람은 운명처럼 이번에도 나란히 KIA 선수가 되어 2017 시즌을 보내고 있다.

한때는 경쟁자였던 친구이기도 하다. 김민식은 “중학교 때 내야수와 투수를

마산중-마산고 졸업...다른 대학 다니다 SK서 재회

상무 복무·KIA로 트레이드도 함께...“신기한 인연”

하다가 고 2 때 포수를 했다. 정민이는 원래 내야수였다”며 옛 시절을 떠올렸다. 최정민은 “민식이 내야수로 잘했다. 그때는 빠르기도 했다. 지금도 포수로는 빠른 편이다”고 웃었다.

트레이더와 함께 KIA의 안방마님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김민식과 비교하면 최정민은 이제 막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신입 호랑이’다.

지난 시즌 SK에서 88경기에 나와 0.329의 타율과 함께 8개의 도루를 기록했던 최정민은 지난 스프링 캠프에서 오른발등 골절을 입으며 재활의 봄을 보내야 했다.

지난 7월 시즌 처음으로 1군에 등록된 최정민은 8일 KIA 데뷔전에서 대수비로 들어간 뒤 4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첫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한 그는 특유의 빠른 발도 보여주며 신고식을 끝냈다. 최정민에게는 친구가 있어 든든했던

첫 경기였다.

최정민은 “기대도 컸고, 겨울에 준비를 잘해서 부상이 아쉬웠다. 재활하던 상황이라서 트레이드 소식을 듣고 더 놀랐는데 친구랑 같이 와서 다행이었다”며 “원래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라운드에 나가서 오른쪽을 보니까 (이)명기 형이 있고, 포수 자리에 민식이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또 “친구가 전반기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기쁘다. 이제 내가 역할을 해야 한다. 첫 경기는 수비에서 실수해서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다”며 “달리기가 장점인데 스피드로 어필하는 게 내 생존 방법인 것 같다. 또 자전 수형 능력에 신경 쓰겠다. 골업 소식을 들었을 때 신인의 마음으로 하자고 다짐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 ‘실·바늘처럼’ 임기영-김윤동

KIA 타이거즈의 마운드 미래를 책임질 ‘실과 바늘’이다.

올 시즌 KIA의 최고 히트 상품은 임기영이다. ‘임시 선발’로 출발해서 선발 세 번째 경기 만에 완봉승을 이뤄낸 임기영은 지난 6월 7일 한화전에서 두 번째 완봉승으로 7승째를 기록했다.

임기영의 옆에는 든든한 친구 김윤동이 있었다. 경북고에서 좌측우완 좌투수로서 두 사람은 프로에서는 적이 되어야 했다. 임기영이 한화 지명을 받았고, 김윤동이 외야수로 KIA 유니폼을 입은 것이다.

그러나 2017년 두 사람은 KIA 마운드에서 1위 행진을 견인하고 있다. 임기영은 승리를 부르는 선발, 김윤동은 사연 많은 불펜에서 필승조를 넘어 마무리 역할까지 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돌고 돌아 똑같은 마운드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 일단 김윤동이 프로에 들어와 투수로 전향했고, 지난 2014년 임기영이 송은범의 FA 보상선수로 KIA의 선택을 받으면서 두 사람이 다시 같은 옷을 입게

경북고 동기...임기영 한화·김윤동 KIA서 프로 시작

임, 2014년 송은범 보상선수로 KIA행...계대 후 재회

된 것이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 먼저 상무에서 재회했던 두 사람은 후임이었던 임기영이 지난가을 제대를 하면서 ‘진짜’ KIA 동료로 뛰고 있다.

마운드의 두 축으로 전반기를 보냈던 두 사람은 프로에서는 적이 되어야 했다. “야구 관련해서도 스텝없이 편하게 이야기하고, 지적도 한다”고 말하던 김윤동은 친구의 위로를 받으며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다. 그리고 지난 7월 임기영이 부상을 털고 복귀하면서 두 친구의 동행이 다시 시작됐다.

임기영은 “둘이 함께 있어서 좋다. 운동이 안 좋을 때 힘내라는 이야기를 해줬다. 친하다 보니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힘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좋은 친구와 좋아하는 야구를 원 없이 볼 수 있게 된 임기영이다.

“야구를 안 봤다. (야구를) 보면 괜히 마음이 급해질까 봐 결과만 확인했다. 잘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임기영은 다시 마운드에 올라 공을 던질 생각에 웃음을 감출 수가 없다.

지난 8일 kt와의 경기에서 임기영이 이어 2회말 2루를 하면서 임기영이 마운드에 다시 섰지만, 많은 비가 내리면서 노게 임이 선언됐다.

“그렇게 비가 오는데 임기영만 좋아서 웃으면서 마운드로 올라가더라”고 김기태 감독이 웃음을 보일 정도로 임기영에게는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임기영은 “마운드에 올라가려니까 재미있었다. 로진을 달라고 하는데 바로 들어오라고 하더라(웃음). 비가 조금 그쳤을 때는 던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준비 잘했으니까 재미있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 이승엽, 마지막 올스타전 그냥 떠나지 않으리

최고령 베스트...홈런 2개 추가면 홈런왕·최고령 MVP 도전

올해를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나는 ‘홈런왕’ 이승엽(41·삼성·사진)이 올스타전 홈런 타이틀까지 정복에 나선다.

1995년 프로에 데뷔한 이승엽은 KBO 정규시즌 통산 459개의 홈런으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마지막 시즌인 올해도 전반기에만 홈런 16개로 팀에서 다린 리프와 함께 공동 선두를 달린다. 홈런에 관한 기록을 두루 섭렵한 이승엽은 이제 올스타 홈런왕에게 도전한다.

2017 타이거즈 KBO 올스타전은 이승엽의 안방인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15일에 열린다.

이승엽은 올스타전 개인 통산 홈런 3개를 기록 중이다. 이 부문 1위는 김용희(롯데)와 양준혁(삼성)·홍성흔(두산)이 보유한 4개다.

더불어 이승엽은 올스타전 최고령 베스트 출전 달성도 눈앞에 뒀다. 올스타전이 열리는 날까 기준 40세 10개월 27일인 이승엽은 2000년 올스타전에서 매직리크 선발투수로 나선 김용수(LG·40세 2개월 21일)를 넘어설 예정이다. 감독추천선수를 포함한 최고령 선수는 2010년 올스타전 당시 41세 1개월 28일이었던 양준혁이다.

이승엽은 2011년 이병규(LG)가 만 37세로 세운 최고령 MVP까지 넘본다. 이정후(넥센)는 타자 최연소 베스트 출전을 눈앞에 뒀다. 올스타전 날짜 기준 18세 10개월 7일인 이정후와 최고령 이승엽의 나이 차는 22세 20일로 이정후의 나이보다 많다.

종전 베스트 최연소는 2009년 고졸 신인 안치홍(KIA)의 19세 23일이었다.



당시 안치홍은 지금까지 유일한 신인 MVP까지 차지했다.

작년까지 35번의 올스타전에서 투수가 미스터 올스타(MVP)에 오른 건 1985년 김시진(삼성)과 1994년 정명원(대평양)뿐이었다.

2년 연속 MVP는 1998~1999년 박정태(롯데)가 유일하며, 전준우(롯데)는 퓨처스 올스타전(2008년)과 KBO 올스타전(2013년)을 모두 석권한 첫 선수다.

올해 올스타전에서 35년 만에 만루홈런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작년까지 43경기의 올스타전에서 총 100개의 홈런이 나왔지만, 만루홈런은 1982년 올스타 3차전의 김용희(롯데)가 유일하게 쳤다. /연합뉴스

## US여자오픈 여름 밤 달군다

총상금 500만달러 규모 오늘 개막...박인비 등 한국 28명

총상금 500만 달러에 우승 상금 90만 달러.

13일(이하 한국시간) 밤부터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파 72)에서 열리는 US여자오픈 골프 대회의 위상은 상금 규모만으로도 쉽게 짐작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웬만한 대회 총상금은 200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

또 US여자오픈은 현존하는 여자프로골프 대회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다. 1946년 시작돼 올해 72회째를 맞았다.

US여자오픈은 한국 선수와 유독 인연이 깊다.

1998년 박세리가 맨발의 투혼 끝에 정상에 올랐고 이 장면을 보고 자란 박인비는 2008년 세벌의 탄생을 알린 데 이어

2013년 두 번째 우승으로 박세리의 후계자로 자리매김했다.

현역 세계랭킹 1위 유소연도 2011년 이 대회 우승으로 LPGA투어에 입성했다. 전인지 역시 2015년 US여자오픈 제패를 계기로 월드스타로 발돋움했다. 김주연, 지은희, 최나연까지 합치면 US오픈 역대 챔피언 명단에 한국인은 무려 7명이다.

올해도 ‘코리아 시스터스’의 강세는 변함없다. 출전 선수 156명 가운데 18%인 28명이 한국 국적이다. 다른 나라 국적의 교포 선수까지 합치면 출전 선수 4명 가운데 1명이 한국 핏줄이다.

유력한 우승 후보 역시 한국 선수가 주력이다. 메이저대회에서만 7승을 거둬왔던 ‘메이저 여왕’ 박인비는 애초부터 이 대회 우승을 올해 목표로 삼았다.

세계랭킹 1위 유소연은 ANA 인스퍼레이션에 이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정상 노린다. 6년 만에 정상 탈환이자 세계랭킹 1위를 당분간 굳힐 수 있다.

준우승을 두 번이나 했던 양희영과 메이저 우승에 목마른 김세영도 US여자오픈을 손꼽아 기다렸다. 큰 대회에 강한 2015년 챔피언 전인지와 지난해 이 대회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박성현의 플레이도 기대된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를 호령하는 신지애, 김하늘, 이민영도 미국 원정길에 올랐다. 한국 여자 골프의 미래를 짊어질 아마추어 최강 라이벌 최혜진과 성은정의 대결도 주목된다.

올해 US여자오픈은 대회 코스보다 선수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현역 대령 소유 골프장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자신의 소유인 스코틀랜드 던베리 골프장에서 치러진 브리티시여자오픈 때 헬리콥터를 타고 경기장을 방문한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US여자오픈 때도 요란하게 행사할지도 모른다고 현지에서는 속삭이를 새우고 있다. /연합뉴스

## IOC “북, 평창올림픽 참가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IOC는 9~10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IOC가 11일(한국시간) 유튜브에 올린 브리핑 영상을 보면, 마크 에덤스 IOC 대변인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중

요하다고 역설했다.

로이터통신 기자는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지난주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공동 대응하는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한국·미국·일본 3개국 정상들의 공동성명을 언급하고 IOC 집행위원회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한반도 긴장에 따른 잠재적인 문제점을 논의했는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에덤스 대변인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

장의 청와대 회동을 거론한 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IOC와 올림픽에 모두 중요하며 북한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북한 선수들을 확인해 이들이 평창에 꼭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흐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만약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하면 올림픽 정신 고취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 지역과 세계평화, 그리고 인류화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전남 당구연맹 김행직 세계3쿠션월드컵 우승

전남 당구연맹 소속 김행직(25)이 세계3쿠션당구월드컵에서 우승했다.

김행직은 지난 10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2017 포르투 세계 3쿠션 당구월드컵대회에서 베트남의 응우옌 쉐우옌을 40대 34(23이닝)로 제압하고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생애 첫 월드컵 우승이고, 한국선수로서도 올해 첫 월드컵 우승이다. 동시에 그는 한국선수 통산 6번째 월드컵 우승자가 됐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랭킹 포인트 80점을

획득하며 세계랭킹도 6위로 3단계 올랐다.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당구장을 운영하던 부모 밑에서 결속마도 폐기 전에 쿼를 잡은 김행직은 2007년에 세계주니어선수권에서 ‘최연소 주니어 챔피언’이 되는 등 당구에 대한 재능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또 한국 선수 최초로 2010년 독일 호스타르크 팀에 입단해 당구 분데스리가 1부리그에 진출했고, 2010~2012년 세계주니어선수권 3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김행직은 오는 10월 충북에서 개최되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남대표로 출전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